

社說

중대 상황 처한 외교·안보 정책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작전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파견 부정 여론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협상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도 합정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 이 수로가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5일(한국시각)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독자 작전의 한계를 의식하며, 선박 호위 작전에 다국적군을 꾸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의 수혜국들이 중동 지역 안보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자동차 관세 등 통상 분야에서 ‘보복’ 당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를 촉구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에 발을 들였다가 이란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경우,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안보 무임승차론’에 바탕을 둔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충

미, 한·일 등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
트럼프 요구 외면 시 통상 분야 ‘보복’ 가능성
19일 미·일 정상회담 살펴보고, 국회 동의도

족하면서도 국익을 지켜 낼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외교력이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중동지역에 파병한 전례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1월 가셀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사령관 제거 뒤 한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인근까지 확대해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당시 아덴만으로 명명된 청해부대 활동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장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동의안에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한국 독자 작전이었고, 지금은 훨씬 위험한 상황에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다국적군 참여는 2020년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 별도의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국지적 도발 수준이었던 2020년과 달리 이번엔 전쟁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해 우리 상선 보호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장병의 안전이 실질적 위협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단 군함 파견 요구를 받은 다른 나라의 반응을 보길 바란다.

당장 19일 미국에서 마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주변국 상황을 살펴보고, 국회 동의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길 당부한다.

디자인상에 대한 ‘독창성의 오해’



데일리 Talk

이선주
산업경제부 기자

익숙한 제품도 ‘세계 3대 디자인상’ iF 디자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

LG gram의 경우 15Z980(2018년 수상작), 17Z990(2019년 수상작), 17Z90N·15Z90N·14Z90N(2020년 수상작) 등, 이른바 ‘LG 그램’ 하면 떠올릴 법한 하얀 몸체와 슬림한 외형의 제품들이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

15Z980은 큰 화면과 초경량 노트북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17Z990은 이를 17인치까지 확장했다. 이어 14Z90N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엔 LG gram 고유의 디자인을 확립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얼핏 익숙해보이는 모습이 디자인상 수상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는 ‘디자인상’이란 단어를 받아들이는 인식과 실제

iF 디자인상 평가 방식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디자인이란 단어는 국내에서 주로 예술이나 외형과 관련지어 받아들여졌다. 자연히 디자인을 독창적인, 세련되고 감각적인 결모습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iF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즉 설계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등 더 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제품을 평가한다. 미학성과 혁신성은 iF의 13가지 세부 기준의 일부일 뿐이다.

매년 iF에서 몇천 개가 넘는 본상(winner)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iF 디자인상이 완전히 독창적이며 미학적인 작품에 수여되는 건 아닌 것이다. 우리 일상, 국내 마트 음료수 코너에서도 수상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18년 iF 디자인 어워드를 받은 칠성사 이다 패키지는 첫 출시 이후 바뀐 디자인들을 복각해 오랜 시간 소비자와 함께한 브랜드 이미지를 드러냈다. 같은 회사의 ‘2% 부족할 때’ 음료 패키지(2026년 수상)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다 기존 브랜드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다듬

은 사례에 가깝다.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패키지(2020년 수상)는 제품 구조와 재질의 느낌을 함께 살린 사례다. 제주 화산 지형의 주상절리를 떠올리게 하는 육각형 무늬를 페트병에 적용했다. 이외 설탕의 장 패키지, 잠자빠빠로 패키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도 미학뿐이 아닌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다만 국제적 디자인상이라는 위명 때문에 수상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러 예술적인 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복잡한 설계를 굳이 말로 풀어 설명할 때 다양한 난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평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고평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출품자 측의 수상 사유 해석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적 상의 권위와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 하려다 제품이 가진 ‘편안함’과 ‘쓰임새’를 놓친 셈이다. 기자 또한 특정 제품의 수상 이유를 소개할 때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sjlee@skyedaily.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재개와 완화 조치



세무테크

이재명
세무사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유예 기간이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6~45%)에 20%p나 30%p를 더하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2일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이 조치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예외를 확대해 시장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

매매계약 시점 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쪽으로 정해진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가 완료되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

역의 경우 허가 신청과 대출 처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다. 이제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양도 및 입주 기간 차등 적용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지정 구역과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구역으로 구분된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면, 기존 지정 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매수자 입주 기한도 이에 연동돼 기존 지역은 4개월, 신규 지역은 6개월로 정해졌다.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해 2개월 추가 유예를 준 것은 지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배려다.

임대 주택 양도시 입주 의무 유예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계약 후 최대 6개월 내 양도를 완료해야 하며, 허가구역이라면 매

수자 입주도 동일 기한 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때 입주 기한을 완화한다. 양도 조건 자체(4~6개월 내)는 변함없으나, 입주 의무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2026년 2월12일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하면 되고, 2028년 2월11일까지는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유예 혜택 적용 대상 및 세부 조건

이 입주 유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임대 상태로 무주택자에게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매도자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매도 주택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양도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해당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2026년 2월 12일 체결된 것으로, 2028년 2월 11일 이내 종료 예정)은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허용한다.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 임대 종료일까지 입주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떡다와 ‘떡다

우리말에서 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중의 하나가 오늘 주제로 삼은 두 단어이다. 여기에 ‘떡다’까지 없으면 더 정산없어진다. 그나마 ‘떡다(순간적으로 힘을 모아 자신의 몸을 허공에 뜬 상태로 만든다, 발을 재게 움직여서 빠른 속도로 다룬 장소로 나아가다)’는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으므로 오늘의 논점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우선 ‘떡다’는 ‘보이겨나 들어오다, 충분히 하얗게 두드러지다, 잘 들리게 되거나 숟갈해지다’의 뜻이다. 즉 ‘눈에 보인다, 간격을 두다, 위로 뜨다’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연상하면 쉽다. 예문을 보자.

태호는 늘 얌전하고 착한 눈에 안 띄는 모범생이였어.

선거철이 되니 거리에 후보자들의 모습이사람들의눈에 띄었다.

이와 같이 쓴다. 한편 ‘떡다’는 ‘행해야 하는 것으로 가지다, 밖으로 드러나기 쉬운 정도로 지나다,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내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무엇을 두르거나 가지다’의 뜻으로 생각하면 쉽다.

예문을 보자.

그녀는 분홍색을 띤 차마를 입었어. 국수주의 성향을 띤 민족주의단체 등과 같다.

참고로 ‘떡다’는 ‘빛깔을 약간 가지다’, ‘떡다’는 ‘뜨이다(감았던 눈이 열리다, 없던 물건이 눈에 드러나 보인다)’, ‘떡우다(물건과 물건 사이를 뜨게 하다, 물이나 공중에 뜨게 하다)’와 같이 구별한다.

중부대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화학회 회장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직대 주경준
주필 황홍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드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 / 연 240,000원

스카이드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